

## 말라리아의 재유행

서 홍 관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시인

말라리아는 학질이라고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알려진 병이다. 이 말라리아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이다. 우리 나라에도 과거에는 많은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1950년대까지는 성인의 약 40%가 말라리아 기왕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실시된 전국적인 말라리아 환자 발견 및 치료 사업과 자연적 감소경향으로 1970년대에 소멸되고 말았다.

문제는 한때 우리 나라에 존재하다가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1993년 파주의 군부대에서 발생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수가 늘고 있다. 묘하게도 말라리아가 휴전선 주변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한 때 북한의 세균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등장했지만 근거는 없다. 말라리아가 다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말라리아 유행지가 북상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말라리아는 아노펠레스(Anopheles)속 모기의 흡혈에 의해 전파되며 간혹 감

염된 혈액의 수혈 또는 마약사용자 사이에 오염된 주사기를 통해 감염된다. 또한 드물게는 모체에서 태아로의 감염도 가능하다.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열대형 말라리아는 입원한 환자중 영아에서의 사망률은 31.9% 어린이에서는 20.4%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1년에 1억명의 환자가 생기고 100만명이 사망한다고 하며 말라리아에 의한 거의 모든 사망은 이 종류의 원충에 기인한다. 난형열 원충은 드물며 아프리카에만 존재하고, 사일열 원충은 인류와의 기생관계가 오래된 종류로서 인체와 어느 정도 공생관계가 생겨 임상중세는 경미하나 감염기간이 오래 지속되며 널리 분포되어 있다.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은 모기약, 모기향을 사용하는 방법과 몸에 바르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학질모기는 보통 해질 무렵부터 새벽 사이에 사람을 물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피치 못하게 밖에 나가야 할 일이

**해외의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는 일주일 전에 복용을 시작해  
처음 4주간은 매주 한번씩 복용하고 이후에는 이주에 한번씩  
위험지역을 떠난 후에도 4주 동안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

있으면 몸을 감싸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의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여행할 때는 필히 예방적 화학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여행 일주일 전에 복용을 시작해서 처음 4주간은 매주 한번씩 약을 복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주에 한번씩 복용해야 한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위험지역을 떠난 뒤에도 4주 동안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의 유행지역에 따라 클로르퀸에 약한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 있고, 클로르퀸에 내성이 있는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들이 있다. 클로르퀸에 잘 듣는 말라리아 지역에 갈 때는 하이드로클로르퀸을 복용하면 되고, 클로르퀸

내성 지역에 갈 때는 메플로퀸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된다.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면 우선 열이 나고, 빈혈이 발생하고, 비장이 커진다. 열은 춥다가, 덥다가, 식은 땀이 나는 3 단계로 발생한다. 열이 48시간 간격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열이 발작하는 중간에는 체온이 정상이다.

우리 나라에서 잘 생기는 삼일형 말라리아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진단만 일찍 붙인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는 클로르퀸이 가장 유효한 약제이다. 클로르퀸을 첫날 600mg, 그후 300mg을 3일간 사용한 뒤 근치를 하기 위해서 프리마퀸 1일 15mg을 14일간 투여해야 한다. †

**말라리아 예방법**

